	보도자료	배포일자	3. 31.(월)	매수	2매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공공의료본부	실 장	장 진 성	☎	054-530-3042
	공공의료사업팀	담 당	최 화 연		054-530-3029

상주적십자병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운영

- 희망진료센터,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누구나진료센터, 운영 -

사진설명: 상주적십자병원에 의료비 지원을 위한 문진 및 상담

□ 상주적십자병원(병원장 김혁수)은 올해부터 상주시 관내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 상주적십자병원은 2015년부터 ㈜삼성의 후원금(매년 금 1억5천만 원)으로 ‘희망진료센터’를 운영하여 최근 3년간 내국인 25,727명(금6억 1천만원), 외국인근로자 3,028명(금1억 5천만원)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였다. 희망진료센터는 취약계층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적정진료가 힘든 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사회사업이다.

□ 2024년 7월부터 서울지사RCHC의 후원금(금1억원)으로 취약계층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72명(금4,519천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다.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뇌경색 및 뇌출혈, 심혈관질환, 의식 저하, 호흡부전, 패혈증 쇼크, 탈수증상 등으로 진단받은 중증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 ‘누구나 진료센터’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한국수출입은행과, Red Cross Gala 후원금(금2억 1천만원)으로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제도권의 경계선에 있는 국내·외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상주시의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하는 의료비 지원 시스템이다. 누구나 진료센터에서는 진료비 외 종합건강검진, 예방접종 등도 지원하고 있다.

□ 김혁수 병원장은 “초고령화 도시인 상주시 경제의 원동력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우리병원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응원과 홍보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